

트럼프, 그린란드 군사행동 거론…NATO는 침묵

미국 그린란드 위협에
나토, 공식 입장 없어
유럽 “갈등에 역할 다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초부터 동맹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75년 넘는 역사를 이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토는 미국을 향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어 유럽이 분노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진단했다.

그린란드가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연초부터 대서양 양안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나토는 동맹을 향한 트럼프의 야욕에 정면으로 대응하거나,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강조하는 공식적인 성명조차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나토의 유럽 내 주요 회원국이 앞다퉀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연대를 표명하고,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권 안보 강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것과 확연히 다르다.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과 우



침묵하는 뤼터 나토 사무총장(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앵무

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등 주요 현안에서 엇박자를 내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런 뤼터 총장이 다른 일도 아닌 나토 존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유럽 27개국의 연합체인 유럽연합(EU)도 외부도 당초 침묵을 깨고 그린란드 편에서 목소리를 낸 것과 비교하면 뤼터 사무

총장의 이런 대응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FT는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법은 무력보다 강하다”는 말로 미국이 국제법에 의거해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고,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안이 당사자들 없이 결정될 수는 없다”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야욕을 우회적으로 일난한 바 있다.

FT는 유럽과 북미 간 안보 논의에 있어 사안 족족 존재감을 드러내 온 뤼터 사무

총장이 이번 그린란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CNN의 질문에 60초가량 짧막히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덴마크 정치권은 미국과의 분쟁에서 나토가 좀 더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중도우파 정당 자유동맹의 카르스텐 바흐 의원은 “나토의 한 회원국인 미국은 북극권에서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 위협은 나머지 회원국에는 그리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까닭에 나토는 이번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란 시위 ‘2000명 이상 사망’ 제기

IHR, 538명 사망 집계…이란 대통령, 폭도 진압 엄단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란 당국은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시위대를 압박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에 개입할 가능성을 검토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시위 열닷새째인 11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서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이 단체가 지난 9일 발표한 51명에서 약 4배로 된 수치다.

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다.

IHR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희생자 시신 수백구가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 통신(HRANA)에 따르면 사망자가 시민

490명, 군경 48명 등 모두 538명에 이르며 1만6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기관도 전날 집계 116명보다 사망자가 약 5배로 늘어났다고 파악한 셈이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를 인용해 6개 병원에서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실탄에 맞아 숨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지난 3일간, 특히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위대 학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당국은 지난주부터 인터넷·통신 등을 차단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 신정체제 수호의 점령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상군을 투입하며 시위 진압에 주력하고 있다.

외부와 소통할 길이 막힌 이란 시민 중 일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인공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이용해왔지만, 최근 아마저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